

작품이라는 말에서 “작품”(Masterpiece)은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이다. 반대 말은 “실패작”, “망한 작품”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창1:27),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말씀하신다(창1:31).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멋 있었다”, “감사하다” 라고 평가하는가? “실패했어”, “쓸모없어”하는가?

창3장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과 인생은 끝없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 민족으로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 떠난 인생,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 배후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타락한 영들의 세력, 사단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그 분이 하신 것이 “구원”이다(마1:21). 본래 축복의 회복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길이 되어주신 것이다(선지자, 요14:6).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생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제사장, 롬8:1-2). 그 분이 부활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내 인생 속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다(왕, 요일3:8).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의 삶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고, 작품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 상태를 성화, 영화라고 한다. “성화”는 의롭고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고, “영화”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롬8:30).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방법이고, 축복이고, 결론이다. 그 영적 작품의 첫 번째 모습이 플랫폼이다.

1. 플랫폼이 무슨 뜻인가?

사람이 모이고, 모든 교통 수단이 모이고, 모든 흐름이 모이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모든 것의 근원지이다.

1)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구원하셨다고 했다(엡1:3). 근원의 축복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일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았다(창12:1-3). 원수가 인정할 정도로 이삭이 그 언약을 누렸다(창26:29).

요셉은 노예로 간 자리에서, 감옥에서도, 나중에는 왕 앞에서 간 증거를 보였다(창41:38)

2)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움직이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주위로 다 모일 것이라고 했다. 나라와 왕들도 오고, 무리가 오고, 아들과 딸들이 오고, 열방의 재물까지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사60:3-7)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잠시 문제와 어려움 올 수 있다. 문제 아니다. 거기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라(렘33:1-3)

3) 그들이 결국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라고 한 것이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영적 흐름을 바꾸었다(행8:4-8). 주의 종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로마와 세계를 바꾸었다(행13:1). 가는 곳마다 그 팀에 사람이 붙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같은 램넛트도 붙었다.

2.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1)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세 번을 반복해서 “내가 다시는”(Not anymore) 이라는 약속하셨다(18-20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다(사55:11). 이것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나오게 하라(사59:21).

2) 적어도 세가지에 속지 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 그것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통로이다.

① 나의 과거에 속지마라. 나의 상처, 실패, 무능에 잡혀 있지 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있다(사43:18-20)

② 나의 현실에 속지마라. 나의 형편과 환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마18:18).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고(계3:8),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했다(사22:22)

③ 나의 불신앙에 속지마라. 결국 사단은 나에게 열등감, 경쟁의식, 분노, 분쟁, 낙심, 절망을 일으키게 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이것이다. 결국 뱀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진다(민21:4-6).

3. 내 인생을 플랫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1) “여호와와 우리의 빛이 되며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다(19-20절).

① 이 빛과 영광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요1:9-14).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분을 바라볼 때 얻는 것이 그 분이 주시는 힘이다. 이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② 그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내 인생과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의 능력이다(엡6:12).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능력을 누릴 때 나도 살리고, 가정, 가문, 교회, 미래를 살린다.

② 이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이다(정시 기도, 집중 기도, 무시 기도, 24 기도).

만드시 개인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훈련하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때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20절). 그러면서 흑암에 묶인 것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다.

2) “네가 영원히 땅을 차지 할 것이라”고 했다(21절).

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참된 성공을 의미한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성공은 제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② 성경의 램넛트 7명,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그들이 세상과 미래를 살린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한 것이다(22절)

가난도, 학력도, 장애도,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20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다(렘컨, 무디, 와나메이커, 크로스비, 에디슨). 그 시대에 미국은 세계를 살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

3)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다(22절하)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누구하고 비교하고 경쟁도 하지마라.

당장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영적 상태이다. 미래는 준비되어 있다.

각자를 향한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그것이 믿음)

결론-내 인생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오직). 그때 나의 모든 것이 유일성이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재창조). 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기를 축복한다.